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375-419
<https://doi.org/10.29212/mh.2022..122.3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강정일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육군 중령

- 목 차
1. 서 론
 2. 림랜드(Rimland)이론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3. 중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4. 미·중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 A2/AD와 MDO
 5. 결 론

초 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미·중의 군사적 경쟁 양상과 연계·분석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안보환경을 평가하여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시각을 견지하여 그들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한반

도에 적용해왔는지'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전략)과 미국의 다영역작전(MDO)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작전 양상 속에서 봉쇄의 전략적 요충이자 순망치한의 완충지로서, 이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한반도의 가치와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특히, A2/AD전략의 근간이 되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면서 미국의 對중국 봉쇄정책과 MDO의 첨단에 위치한 양국의 핵심이익이 중첩되는 지정학적 공간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양상이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 지정학, 봉쇄정책, A2/AD전략, 다영역작전(MDO), 한반도

(원고투고일 : 2021. 7. 3,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韓半島)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하는 민감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국가에게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팽창의 발판으로, 해양국가에게는 해상 무역로의 거점이자 대륙세력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봉쇄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왔다.¹⁾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했다.²⁾ 21세기 한반도는 고난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냉전 구조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탈냉전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되어 패권국가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파트너로서, 또는 인접국인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미·중 패권경쟁을 포함한 주변국 간의 경쟁 구도가 인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 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은 그의 저서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를 통해 중국의 패권 도전과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제국적 영역을 재확립

1)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학계의 주된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가치를 분석할 것이다. 비판적 주장은 김학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2), 2019.를 참고할 것.

2) G. A. Lensen,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1904 (Florida: The Diplomatic Press, 1966), pp.2~3.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며,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지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간접적 위협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³⁾.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도전은 시작단계를 뛰어넘어 현실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력은 카플란이 평가했던 시기와 달리 급부상하여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16.86조 달러로 미국의 22.9조 달러의 2/3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2021년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중국의 GDP는 27.07조 달러로 미국의 22.9조 달러를 초월한 상황이다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군사력의 비약적인 증강으로 이어져, 2021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1,782억 달러로, 7,405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에 올라있다⁵⁾.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가열될수록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 영토 또는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연루와 방기의 위험성 또한, 점증 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국력 신장과 미국의 對 중국 봉쇄정책이 상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수행 양상이 변모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정학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미·중의 군사적 경쟁 양상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흔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3) 로버트 D.카플란 지음, 이춘호 옮김, 『지리의 복수』, 서울: 미지북스, 2017, 294-296쪽.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 2021.12. 1.)

5)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검색일: 2021. 12. 1.)

설과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패권경쟁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과거와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림1>과 같이 지정학이라는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살펴본 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해왔는지’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전략(이하 A2/AD전략)⁶⁾과 미국의 다영역작전(MDO)⁷⁾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작전 양상 속에서 봉쇄정책의 요충지이자, 순망치한의 완충지로서 이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한반도의 가치와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역사라는 학교가 가르쳐주는 변화하지 않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 교훈은 보편적인 함의를 가지고 지속 되며, 일반적 원칙으로 적용 가능한 역사의 산물이다.”⁸⁾ 라는 마한(A. T. Mahan)의 주장과 같이 역사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것지만 여전히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지리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론도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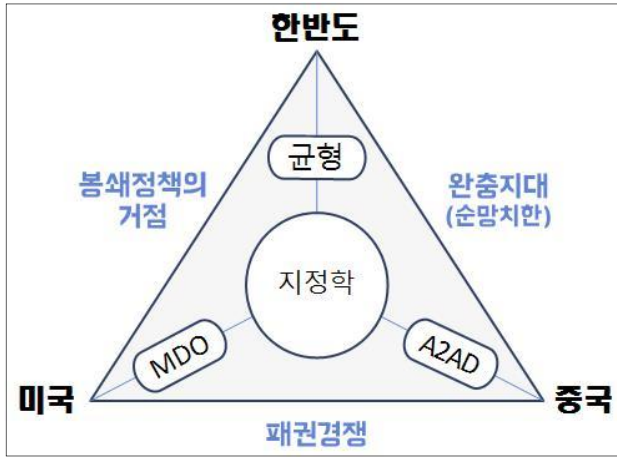
6) 美 국가안보전략서(NSS, '10. 5. 27.)에서 최초로 정의한 중국의 전략으로 A2(Anti-Access)는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反접근(Anti-Access)을 의미하며, AD(Area Denial)은 작전지역 내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지역거부(Area Denial)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전략을 A2/AD전략으로 기술한다.

7) 다영역작전(MDO: Operation)은 2025~2040년에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상한 개념이다. 허광한,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軍史研究』, 제147집, 2019, 148쪽.

8)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49), p.2.

을 것이다.

<그림 1> 분석의 틀



2. 림랜드(Rimland)이론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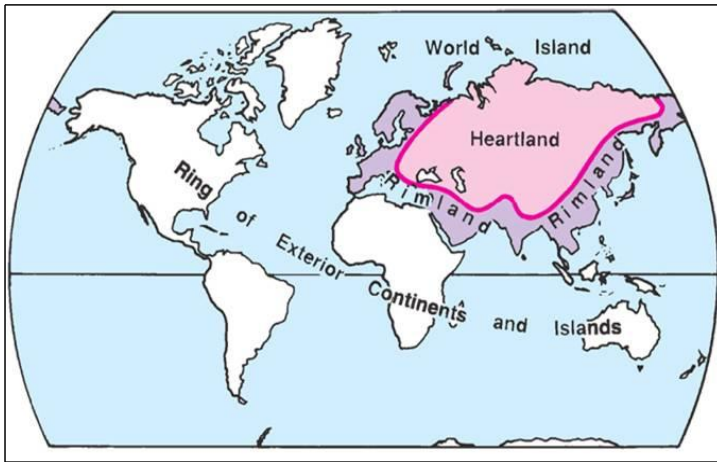
가.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과 봉쇄정책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man)은 『평화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peace)』을 통해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스파이크만은 연안지역인 림랜드의 중요성에 대해 “유라시아의 주변 지역은 심장지역(Heartland)과 연안(Marginal sea)의 사이에 위치한 매개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광활한 완충지대(Bufferzone)이다.”라고 강조하며⁹⁾ 림랜드(Rimland) 지역

9) Nicholas J. Spykman,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1944), p.41.

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해야 할 열쇠와 같은 곳으로 지목하였다¹⁰⁾. 림랜드 지역은 고온다습하여 대부분 지역이 농경에 적합하고, 많은 인구가 생활하는 문명화된 지역으로 해양 및 대륙세력 양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완충지대인 림랜드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적 통일성과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용한 거점이자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¹¹⁾.

<그림 2> 스파이크만의 세계구분



* 출처 : <https://slideplayer.com/slide/14776816/> (검색일 : 21. 4. 8)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종식 시기까지 서구의 대표적인 지전략(Geostategy)으로 활용되

10) S. B. 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 (New York: Random House, 1963), p.46.

11) 림랜드 지역은 4대 고대문명과 기독교, 불교 등 종교가 발원한 지역이다. 김종두, 『한반도 해양정치학』, 서울: 문영사, 2000, 80-82쪽.

었다. 당시 스파이크만은 림랜드이론을 중심으로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지정학적 논리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에 투영되어 미국의 對 소련 봉쇄정책의 기본적 틀로 활용됨으로써, 림랜드를 장악하려는 대륙국가들의 침투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반영되었다¹²⁾. 스파이크만의 이론은 이후 조지 케닌(George F. Kennan)과 브레진스키(Brezinski)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냉전기 미국 군사정책의 기본적 틀인 봉쇄정책(containment)으로 적용되었다.¹³⁾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이념적 적국이자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심하였고, 그 결과 지정학에 기반을 둔 봉쇄정책을 계획하여 소련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에 영향을 받은 브레진스키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쟁국들을 그들의 영토 내에 봉쇄시킴으로써, 한 국가의 영향력이 범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의 주변부라 할 수 있는 림랜드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한반도는 판단의 시점과 무관하게 전략적 요충지로 지속하여 분류해 오고 있다¹⁴⁾.

12)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997, 108쪽.

13) 모스크바 주재 美 외교관이던 George Kennan은 소련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봉쇄정책에 대해 학술지인 Foreign Affairs에 X라는 필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 케닌은 “소련을 봉쇄하고 내부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 1947, pp.566~582.

14)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2007), ch. 2.

나. 동북아시아의 림랜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대륙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동북부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열도를 향해 약 1,000km 정도 뻗어 있다. 한반도의 국경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1,416km,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류를 기준으로 19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스파이크만이 주목한 ‘림랜드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자, 마한이 강대국 지위를 결정하는 전략적 핵심이라고 여겼던 중요 해로 즉,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한 대한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하다¹⁵⁾.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림랜드, 한반도는 온대지역에 속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양과 대륙을 이어 주는 매개지역이자, 해양국가 또는 대륙국가가 선점하여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는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세력 관계 속에서 분쟁의 역사를 감수해야 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해양국가 영국, 미국,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였고, 대륙국가 러시아와 중국 또한,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 한반도를 두고 경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처럼 양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지역이면서¹⁶⁾,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15) A. T. Mahan(1949), pp.281~329.

16)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278쪽.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20세기 이전의 범세계적 패권경쟁이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패권경쟁의 중심은 동아시아 지역의 림랜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¹⁷⁾.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가 다시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가. 중국의 전통적 인식 : 순망치한과 완충지대

19세기 한반도의 지정학 가치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인식은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쓴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황준헌은 “조선이라는 위치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분쟁을 가져오게 되어있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앙 및 동아시아 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¹⁸⁾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중국이 구축해온 화이질서(華夷秩序)를 뒷받침하는 극동의 첨단에 위치하는 속방이자, 중국의 동쪽 지역을 방어하는 방과제 역할을 해온 군사적 요충지였다.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톈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이르는 주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중국의 정치적 중심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입술과 같은 역할을 해온 핵심지역으로,

17) 이영형,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8년 3월, 138쪽.

18) 황준헌, 김승일 편역, 『조선책략』, 서울: 범우사, 2007, 68쪽.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지정학적 인식은 순망치한(唇亡齒寒)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접한 강대국 일본과의 지역 패권경쟁이 심화 될수록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고양되어 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 ‘해양제국의 전초기지’, ‘중국의 머리를 가격하기 위한 망치’, ‘아시아 본토로 진출하기 위한 도약대’ 등으로 표현하였다¹⁹⁾. 이 모든 수식어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순환되어 온, 경쟁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가 가지게 된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한 말들이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대륙에서 일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돌출부였고, 일본에게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상륙지였다²⁰⁾. 이것이 바로 한반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한국을 지배하는 우월한 한 나라인 중국, 혹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서 경쟁하는 일본, 러시아 두 국가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²¹⁾.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세력균형의 결과에 따라 종속된 삶을 살아가거나 직접적인 지배를 당해야만 했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19) William Elliot Griffis, Korea, The Hermit Nation, 9th ed. (New York: AMS, 1971), p.9. ; John Chay, "Korea, A buffer State," John Chay and Tomas Ross (eds.), Buffer States in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191.

20) S.C.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32-33.

2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Co., 1993), pp.192-193.

주요한 변인은 중국이었다.

6.25전쟁을 통해 중국이 인식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졌다. 개전초기 중국은 건국 후 정리되지 않은 중국 내부의 상황과 지도부의 강력한 개입반대로 인해 참전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38선을 향해 진출하자 1950년 9월 30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인은 외세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 국가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침공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²²⁾, 10월 7일, 미 제1기병 사단이 38선을 실제로 넘어 북진하자, 10월 13일, 마오쩌둥(毛澤東)은 70시간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심사숙고하여 6.25전쟁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미국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미군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한다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결국 중국은 순망치한(唇亡齒寒)의 두려움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6.25전쟁의 참전을 결정하였다²³⁾. 중국은 외부세력의 침공으로부터 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필요했고, 완충지대이자 중국 본토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인 한반도의 북부지역 즉, 북한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6.25참전은 북한을 상실하면 중국 본토의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인식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은 6.25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1년 7월 11일, 중국은 북한과 전시협력 관계를 넘어서는 북중동맹조약인 ‘중·조 우호합작호조조약

22) 윌리엄 스톡 저, 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5, 122쪽.

23) 세르게이 곤차로프, 존 루이스, 웨리타이 지음,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339쪽.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 중국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한 것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었다²⁴⁾. 북·중 동맹조약이 체결된 이후,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북핵문제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수시로 변화하였지만 중국이 바라보는 순망치한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경의 안전보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1961년 북중동맹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후원자로서 북한체제를 옹호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이유이다²⁵⁾. 더구나 최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어 자국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지속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서방과 함께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정권과 국경의 안전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자체적인 정권교체나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유지된다면 중국은 국경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 경제적 상호성이 확대된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혼란은 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24) Ji-Young Lee, “Geopolitic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 Implications for U.S Policy in the Indo-Pacific”, p.14.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A524-1.html> (검색일: 2021. 3. 12.)

25) Ji-Young Lee(2021), p.15.

내 분단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을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방목표로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치·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요인을 근본으로 하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지정학적 인식은 외부의 충격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미국의 전통적 인식: 봉쇄정책의 전략적 요충지

미국과 한반도의 공식적인 관계는 1882년 5월 12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常條約)을 체결한 이래로 지속 되어 왔다. 미국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첫 번째 서구열강 국가로서, 조선에 전권공사까지 파견하면서 새로운 상업중심지가 될 조선과의 교역에 큰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²⁶⁾. 그러나 당시 조선과의 교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수준이었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자, 미국은 먼로독트린을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우호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²⁷⁾. 미국은 수교체결 2년 만인 1884년 7월 7일, 「외교 및 영사법(Diplomatic and Consular act)」을 통해 주한 공사의 지위를 '특명전권공사'에서 총영사급의 '변리공사'로 강등시켰다. 이에 격분한 푸트(Foote. L. H.)공사가 사임하자 미국 정부는 공사의 후임을 내정하지 않고 18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겨둘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 미국은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한

26) 당시 유럽 열강들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경 중국 공사가 조선공사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나, 미국은 북경과 분리된 조선만의 전권공사를 파견하였다. 강성학(1999), 118쪽;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서울: 지식산업사, 2007, 172쪽.

27) 미국은 조선의 시장성에 대한 실망으로 조선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문형(2007), 177~180쪽.

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한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마찰을 감수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미국은 일본이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반도와 청나라의 무역장벽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을 묵인하였으며²⁸⁾, 일본 또한,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자국의 이익선에서 태평양과 필리핀을 제외하면서, 남쪽으로 타이완, 서쪽으로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목표로 한 팽창정책을 적용할 수 있었다²⁹⁾. 그 결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었던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세력구도와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다시금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하트랜드를 기반한 신생 사회주의국가 소련이 이념을 중심으로 국경 주변부에 대한 팽창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지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당시 駐 소련대사였던 케넌(George Kennan)의 주장을 수용하여 소련의 주변부를 포위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적용하게 되었다³⁰⁾. 미국은 1950년 4월 ‘NSC 68 문서’³¹⁾를 통해 ‘전 세계를 포괄하는 공세적 봉쇄전략’의 필요성을 명시하였고³²⁾ 이로써 봉쇄정책

28)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сква, ИВ РАН.(2004), С.207. ;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러시아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390~391쪽.

29)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74쪽.

30)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2), pp.55~56.

31)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91.pdf?v=2699956db534c1821edefa61b8c13ffe> (검색일: 2021. 1. 14.)

은 냉전 이후 미국의 對 소련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었다³³⁾.

그러나 봉쇄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상되었고, 당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³⁴⁾. 미국은 1947년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통해 아시아지역 핵심국가로 일본을 지목하였으며, 1948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이 美 국가안보회의에서 “남한에 현재의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다.”³⁵⁾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차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 아래 미군은 1949년 6월 29일, 소수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남한에서 철수하였고, 급기야 1950년 1월 12일,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였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암시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하였다³⁶⁾. 극동방위선의 개념은 美 합참이 소련과의 전면전을 가정하여 고안한 극동지역전략의 하나였지만³⁷⁾,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가 있는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연

32) 패트릭 모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원격억제정책,” 박동환 편, 『주한미군의 전략 가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71쪽.

33)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London: Hutchinson, 1968), pp.292-295.

34) 차상철, “트루먼과 아시아에서의 냉전,” 최영보 외, 『미국현대외교사: 루스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176쪽.

3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sia, Volume VI*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8v06/d776>(검색일: 2021. 1. 28)

36) Edward A. Olson,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San Francisco: World Affairs Council of Northern California, 1988), p.3.

37)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175쪽.

결된다.”³⁸⁾라고 범위를 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한반도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위한 방어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물론 한반도가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긴 하였지만³⁹⁾, 애치슨 선언 이후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⁰⁾.

이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지정학적 인식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비호 아래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침공한 북한의 행위를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위한 전초전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제2차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부상한 자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⁴¹⁾. 따라서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일본의 공산화를 완화하는 완충지대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첨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⁴²⁾.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은 對 소련 봉쇄정책을 바탕으로 남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원조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기초 아래 지속해서 유지되어왔다. 특히, 동북아시아 봉쇄정책의 첨병인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충분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 가운데 봉쇄정책을 유지하였다. 비록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를 거듭하였지만 6.25전쟁 이후 미국은 한반도를 강대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림랜드 지역으로 인식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강대국 간의

38) Dean. Acheson, January 23, 1950,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S. Polic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 I I., No. 551, pp.111~118.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docs/19500112.S1E.html> (검색일: 2021. 1. 28)

39) 김영호(2005), 172~176쪽.

40)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75~76, 87쪽.

41) Dean Acheson,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71), p.20.

42)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 논집』, 제35권, 제2호, 2003, 한국아메리카 학회, 65쪽.

세력균형과 데탕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다. 미국은 봉쇄정책을 통해 소련을 저지하고 압박해 나가면서, 소련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주변국가들의 반소련 연대와 단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⁴³⁾.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가 수립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한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지정학적 충돌 요인이 상존하는 국제사회의 관심 지역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1990년 새로운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을 포함한 군비감축을 단행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도한 바 있으나,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됨으로써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북한 문제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있어 핵심위협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책의 변인이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인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공고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정학적 안보 상황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고, 패권국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어 미국에게 한반도는 도전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핵심적 요충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일본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 지역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3) Peter Schweizer, 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4), Ch 4, 15. 를 참고할 것.

한반도는 여전히 대륙국가 소련, 중국, 북한에 맞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지속하여 주둔해 온 군사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위협과 도전이 상시 내재 되어있는 민감한 지역이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요충지로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가 상충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4. 미·중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 A2/AD와 MDO

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A2/AD전략

1) 해양국가로의 전환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중국은 총 22,457Km의 지상 국경선을 따라 총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남쪽 방면에 형성되어 있는 해안선은 태평양과 14,500Km를 연해 있다⁴⁴⁾. 중국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지정학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광활한 내륙지역에서 자급자족하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를 유지하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대륙국가의 특징이 강하게 남아있다. 중국은 대륙과 해양의 혼합적인 특성을 지닌 국가였지만 오랜 기간 대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도 내륙중심의 방어전략에 치중하며 해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 대부분의 위협은 내륙으로부터 야기되었고, 해양을 통한 침략은 근대에

44)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china/#geography> (검색일: 21. 1. 3.)

이르러 발생했기 때문에 해양은 열린 공간이 아닌 방어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해양으로의 진출은 극히 통제되어왔다⁴⁵⁾. 그러나 내륙에 치중된 중국의 전통적 관념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20세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변모하기 시작하였다⁴⁶⁾.

중국은 1990년대 경제개발을 통해 국력이 점차 신장됨에 따라 대륙이 아닌 해양의 중요성과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였다⁴⁷⁾. 1992년 장쩌민(江澤民)이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이 해양에서 가지는 권리와 이익’을 주장한 이래로, 2004년 후진타오(胡錦濤)가 ‘해양으로의 발전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전략 과제’라고 제시하면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였다⁴⁸⁾. 이후 중국은 2007년 제17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 제18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자국을 최초로 해양국가로 정의하면서 해양권리와 이익을 강력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4년 중국의 국방백서는 ‘육지가 해양보다 중요하다’는 내륙중심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해상에서의 군사투쟁 준비를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보고를 통해 ‘육해통합 견지와 해양강국 건설(堅持陸海統籌, 加快建設海洋強國)’을 재차 강조하였다. 당대회에서 중국지도부는 해양을 민족번영과 국가 안위의 희망

45)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2017, 370쪽.

46) 19세기 쇠약해진 청나라에 대한 서구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의 립랜드인 동남연안지대를 해양세력에게 조차해야만 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로버트 D. 카플란(2017), 317쪽.

47) 해양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Lixin Sun, "Chinese Maritime Concepts" Asia Europe Journal, Vol. 8, No. 3, 2010, pp.327~338. 를 참조할 것.

48) "紀念我國批准《聯合國海洋法公約》十周年座談會在京召開," 中國海洋學會, 2006. <http://www.hycfw.com/Article/3499> (검색일: 2021.1.5.)

성취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각시키면서 대륙을 벗어나 해양으로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중국몽(夢)’ 실현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통해 초강대국으로의 지위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륙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국가전략을 해양지역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미국을 포함한 해양국가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⁴⁹⁾. 현재 중국은 국력 신장과 해륙복합형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특성을 재고하여, 연안 방어 수준을 넘어 남·동중국해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한 남·동중국해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의 해양력을 투사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는 해법을 ‘해양국가 건설’에서 찾고 있다⁵⁰⁾.

2) 중국의 A2/AD전략

역사적으로 내륙중심의 방어전략을 구사해온 중국은 안보의 취약 요소로 해양방어를 인식하게 되면서 해양을 이용한 방어전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2년 당시 해군사령관 류화청이 ‘근해 적극방어이론’을 발표하면서 중국 해군의 역할이 연안 방어에서 적극적인 근해 방어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으며, 이것이 A2/AD전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1996년 대만해협위기 이후 중국은 해양에 대한 외부세력의 진입을 억제, 지연, 방지하기 위한 A2/AD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A2/AD전략은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지배 전략을 일컫는 것으로, 해양력이 열세한 중국이 우세한 미국을 상대로 해상작전을

49) 정혜영,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2020, 104~105쪽.

50) 차경미, “북중관계의 지정학 : 중국 지정학 전략의 ‘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 ‘지속’을 중심으로.” 『東西研究』 제31권 2호, 2019, 143쪽.

수행하기 위해 원해에서부터 적의 접근을 거부하는 공세적인 방어전략을 말한다. 사실 ‘A2/AD전략’이라는 명칭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 낸 작전개념이 아닌 해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기초로 수립된 해안방어전략에 대해 미국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A2/AD전략은 2001년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2007년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인 ‘Entering the Dragon’s Lair’⁵¹⁾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A2/AD전략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확보와 영향력 확대, 미국을 포함한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A2/AD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전략적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도련선(島鏈線)의 설정에 있다고 할수 있다. 도련선은 1951년 미국외교정책 분석가이자 6.25전쟁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J.F.Dulles)가 대륙국가 소련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해상에 구상했던 아일랜드 체인 전략(Island Chain Strategy)⁵²⁾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중국이 이를 반대로 준용하여 미국의 아일랜드 체인 전략에 대한 대응개념을 도련선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⁵³⁾.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을 위시

51) Entering The Dragon’s Lair :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monographs/2007/RAND_MG524.pdf (검색일: 2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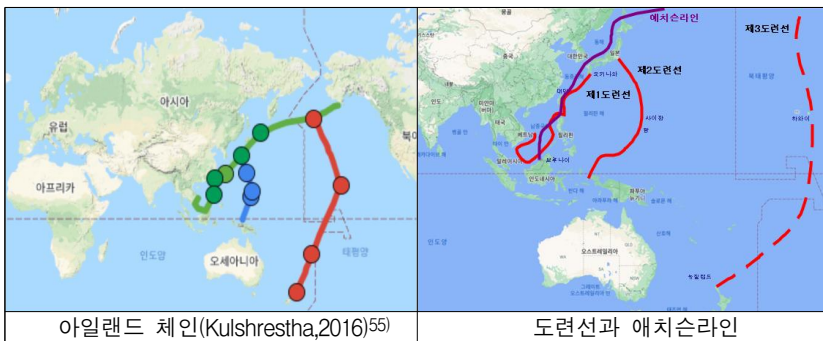
52) 아일랜드 체인의 첫 번째 선은 대만-보르네오해-필리핀-쿠릴섬이며, 두 번째 선은 마리아나 제도-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일본 화산 열도, 세 번째 선은 시베리아 동쪽 끝-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를 연결하고 있다. S. Kulshrestha, “OPINION : Tonga & the Third Island Chain” IndraStra Global, February 25, 2016.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검색일 : 2021. 1. 3.)

53) Hiroyuki Umetsu, “Communist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hostilities and a U.S. proposal for a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Pacific offshore island chai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ume 15, 1996, pp.98~118.

한 해양국가들의 접근을 해양에서부터 거부할 목적으로 A2/AD 전략과 도련선을 구상하여 대응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1985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설정을 통해 중국 근해에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美 해군력의 동아시아 주요 해역의 진입을 저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제1도련선의 완충지대를 확장하여 서태평양 연안을 장악하기 위해 알류산열도~사이판~괌~과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설정하였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제1·2도련선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류산 열도~하와이~뉴질랜드 일대를 연결하는 제3도련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중국이 하와이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제3도련선을 공식화하고 해양력까지 구비하게 된다면 중국의 군사전략은 근해를 넘어 원해까지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원해 적극방어전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그림 3> 미국의 아일랜드 체인 / 중국의 도련선과 애치슨라인



54)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2012, 181쪽.

55)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검색일 : 2021. 1. 3.)

현재 중국은 A2/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합동작전 지휘체계와 국방현대화를 통해 전역작전 능력 제고와 A2/AD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⁵⁶⁾ 2016년 2월,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聯合作戰指揮中心)와 각 전구별 별도의 합동작전지휘기구(戰區聯合作戰指揮機構)를 설치하여 A2/AD 전략을 위한 지휘체계를 정립하였고, 육군의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면서 모듈화(模化)된 부대구조의 합성여단과 합성대대를 편성하여 효율적 부대개편을 시행하였다. 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원양방어형'으로 전환하여 2017년 4월, 2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호'를 진수하고, 3번째 항공모함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군은 '영토방공형'에서 '공방겸비형'으로 전환하여, 폭격기와 공중급유기를 증강시키고, 전략 수송기와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장사정화, 정밀화, 지능화, 스텔스화, 무인화 추세와 우주·사이버 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의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2/AD 전략에 있어 한반도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해상에서 미군 전력의 진입을 거부하고, 중국의 내해를 장악하기 위한 방과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1도련선은 1950년 미국에서 선언한 극동방위선과 아일랜드 체인과 맞물리는 전략선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 지역이다. 특히, 제1도련선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항상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자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안보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제1도련선의 방어를 러시아와의

56) 謝游麟, "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指揮體制," 海軍學術雙月刊 52.1 (2018): 42-55.

<https://navy.mnd.gov.tw/Files/Paper/4-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pdf> (검색일: 21. 8. 16)

전략적 공조를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인근에서 정례적으로 해상연합훈련과 평화사명훈련⁵⁷⁾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초계비행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군사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주변국들에 의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점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영역작전

1) 인도-태평양 전략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특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격차의 감소가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켜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에 대한 도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⁸⁾ 이 같은 위기의식 아래 2019년 6월, 미국방부는 아시아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⁵⁹⁾’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인

57) 상하이협력기구(SOC)가 주관하는 對테러합동훈련으로서, 2004년 7월, 중러 국방장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여 2005년 이후부터 2년에 1회의 연례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反테러리즘을 훈련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핵전력을 제외한 전략폭격기, 잠수함 등이 투입되고 있어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추정되고 있다.

58) U.S. Army TRADOC,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Future warfare (Washington D.C.: TRADOC, 2017), p. 2
<https://adminpubs.tradoc.army.mil/pamphlets/TP525-92.pdf>(검색일: 2021. 4. 11)

59)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을 지역 내 현상유지를 타
과하려는 도전세력으로 간주하면서 특히, 중국군의 현대화와
A2/AD 능력확대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안정성을 저해
하는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보
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냉전시
대 舊 소련에 적용하였던 봉쇄정책과 유사한 對 중국 견제 방향을
제시하였다⁶⁰).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
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
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일
본과 호주에 대한 전략적 역할을 규정하면서 일본을 동맹전략의
초석(Cornerstone)으로, 호주는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대상
(collaborating)으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으로 표현하였다⁶¹.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역할을 ‘평화와 안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이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 호
주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적용하며 인
도·태평양전략의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
황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인도·태
평양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와 한반도 지역에 국한
하여 기술하였고, 한국과 관련된 내용에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
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관한 내용 또한, 수록하지 않았다⁶².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통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검색일: 2021. 4. 11.)

60) 박휘락,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협”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 2020, 106쪽.

61) Department of Defense(2019), pp.23~27.

62) 2017년 11월 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

해 현재 美 국방부가 생각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對 중국 봉쇄정책과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안보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정학적 거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삼국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보체계의 강화를 강조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요 인사들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등 양자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축으로 삼아, 동맹국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상호운용성의 확대 등을 통해 자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나가기에 희망하고 있다.

2) 다영역작전(MDO)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구전략

다영역작전은 美 육군이 합동군의 일부이자 인도·태평양전략의 군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작전개념이다. 다영역작전은 2025~2040년 기간을 상정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A2/AD전략에 대한 대응을 통해 무력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에서부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작전개념이다⁶³⁾. 이러한 다영역작전의 개념에 대해 냉전시대의 작전개념으로 회귀하였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미국이 패권유지와 연관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

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였지만, 다음날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을 의식하여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부인하였다. 이정훈,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분석" 『東西研究』, 제30권 4호, 2018, 82쪽.

63) 허광한(2019), 148쪽.

가 많다⁶⁴).

다영역작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美 육군 전략연구소(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e)에서 발간한 ‘육군의 변혁 :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육군의 전구설계’라는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⁶⁵). 2028년의 전략적 환경을 예측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전구 작전 수행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책임지역을 냉전 종식 이후에 도래한 급격한 변화의 중심 또는 재앙의 진원지(Ground Zero)로 표현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도전국인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의 시대가 도래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략·작전적 우위는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⁶).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적 접근법(reactive approach)’ 보다는 합동군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영역작전을 통해 ‘선제적 접근법(activist approach)’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패권경쟁에 있어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⁶⁷).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장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전력화해야

64) 박휘락,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전 대비 방향 평가: MDO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103호, 2020년(가을), 97~99쪽.

65)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Army Theater Design’으로 발간되었으며 2018년 마크 에스퍼 당시 육군장관(前 美 國 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지역에 대한 미래 美 육군 전구 설계 방안을 제시한 문건이다.

66) US Army War College SSI,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Army Theater Design, 2020, p.8.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1905&context=monographs> (검색일 : 2021. 4. 23.)

67)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p.28~29.

한다고 조언하면서 일본, 호주를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중국의 A2/AD전역 내 위치하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작전기지로써 중국, 북한, 러시아에 맞서 다영역작전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거점으로 묘사하였다⁶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략·운용적 상황이 변화될 경우, 고정되어 있는 한·미간 안보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이지만 중국과의 문화적 근접성과 A2/AD전역 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역할 수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⁶⁹⁾. 더불어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지역 내 미군의 배치는 6.25전쟁과 냉전의 유산으로 현재의 미군 배치는 초경쟁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량을 증대해 나가는 중국의 새로운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⁷⁰⁾. 이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한반도의 전략·작전적 상황이 변화될 경우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목적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전략과 다영역작전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향후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육군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에스퍼 前 국방장관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시각과 생각을 반영한 문

68)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77.

69)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p.78~79.

70)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59, 74.

서로,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안보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의 국방정책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합동 전영역작전(JADO : Joint All-Domain Operations)

미국 합참은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모태로, 중국의 A2/AD전력을 극복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합동 전영역작전(JADO : Joint All-Domain Operations)'을 발전시키고 있다. JADO는 변화하는 작전환경과 적의 A2/AD 전략에 대응하고 대규모 전쟁 수행을 위한 합동작전 기본개념으로 모든 전장영역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전개념이다⁷¹⁾. JADO는 공지전투(Air-Land Battle)에서 수행된 영역 간 지원의 개념을 넘어선 지상, 공중, 해양, 사이버 등 작전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합동 전력들의 통합작전으로 구성된다.

JADO 개념은 이전의 합동작전 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과 마찬가지로 전면전의 경우 중국의 A2/AD전력을 와해, 패배시키는 공격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JADO는 전 영역의 센서들과 공격무기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한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JADC2 :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⁷²⁾. 美 육군은 합동 전영역작전의 모태가 된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공군은 JADO를 통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속전투배치 (Agile Combat Employment)' 개념

71) Brett Daniel, 'What Is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Trenton Systems Blog, on Nov 9, 2020

<https://www.trentonsystems.com/blog/what-is-jadc2> (검색일: 2021. 4. 19.)

72) 최우선, "미중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국립외교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62, 8-9쪽.

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美 해군은 통합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분산된 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개념을, 해병대는 작은 섬들을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기동전을 수행하는 '원정전진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을 발전시키고 있다⁷³⁾. 향후 미국은 분쟁 역제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부터 다영역작전을 포함한 JADO작전을 통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4)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과 2022년 국방예산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⁷⁴⁾'을 공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지침을 통해 국제 안보환경 내 위협들이 국경이나 장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반영하였다. 특히, 중국을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으며,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과 다자주의 공조, 외교정책을 통한 갈등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 국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NATO, 호주, 일본 등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다시금 활성화,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⁷⁵⁾.

73) 최우선(2020), 10-12쪽.

74)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March, 2021.
<https://fas.org/irp/offdocs/inssg.pdf> (검색일: 2021. 4. 11.)

75) The white house(2021), p. 10.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국방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 2021년 12월 27일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⁷⁶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021년 국방예산 7,405억 달러(한화 870조 원) 대비 약 5% 증가한 총 7,680억 달러(한화 912조 원)로 확정되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을 증강하는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 약 51억 달러(한화 5.6조 원)를 배정하였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위협국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한화 22.5조원)를 배정하였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국가안보전략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중간지침과 국방예산안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미국은 ‘경쟁적 우위’ 요소를 이용하여 중국의 A2/AD체계를 무력화하고 중국에게 비용 소모를 강요하는 경쟁전략을 지속해나가며, 분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부터 다영역작전을 통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A2/AD전략의 내선에 위치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방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 다영역작전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7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350/text> (검색일: 2021. 12. 16.)

5. 결론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분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양측세력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안지역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륙과 해양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자,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냉전시기 한반도는 정치·이념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민감한 완충지대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냉전의 유산이 유지되는 유일한 대립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군사·안보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핵심이익과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지역이자, 중국의 부상과 북한과 대만 문제, 동아시아국가들의 첨예한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특히, A2/AD전략의 근간이 되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여, 미국의 對 중국 봉쇄정책과 다영역작전의 첨단에 위치한 양국의 핵심이익이 중첩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미국의 對 중국 봉쇄정책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중국의 머리를 가격할 수 있는 망치’ 역할이 가능한 공간이며, 중국에게 있어서는 외세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미국의 봉쇄정책을 와해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입술과 같은 공간인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국력신장과 미국의 對中봉쇄정책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미·중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양상이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와 공격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략적 방어’와 ‘적극적 자위를 위

한 반격'이 중심이 되는 공세적인 방어개념인 '적극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A2/AD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이미 내해화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고, 한반도를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하여 한반도 근해의 미군 군사활동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향후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지역적 불안정성은 가중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전구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육군전력의 재배치를 통해 더욱 촘촘한 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호주와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對 중국 봉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중의 전략개념과 작전수행 방식의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패권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다영역작전과 중국의 A2/AD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패권경쟁의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 영토 또는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역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에 대항하여 인도·태평양전략과 다영역작전에 참가하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증가하고, 패권국 미국에 맞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등 세력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지정학적 가치

가 상쇄되어 양 세력 모두에게서 방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순망치한의 북중관계와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대체할 수 있는 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보한다면, 과거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배제한 것처럼 우리를 방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70년을 넘게 동맹관계를 이어 온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연루의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본 논문은 군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처방이 아닌 진단’의 수준에서 기술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안보적 측면에서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 국가적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의 수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對 중국 봉쇄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거점으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안보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반면, 안보적 측면과는 다르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보

다는 중국과 더 큰 규모의 교역을 유지하고 있으며⁷⁷⁾, 향후에도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한 對中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개의 핵심축인 안보와 경제,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와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유지한 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헤징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우리의 국력과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배합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77)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은 중국으로 2위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교역량은 1.7~1.8배의 차이가 난다.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 : 2021. 12. 23.)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 전략』,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http://uci.or.kr/G901:A-0008559712@N2M>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http://uci.or.kr/G901:A-0006108905@N2M>

김종두, 『한반도 해양정치학』, 서울: 문영사, 2000.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http://uci.or.kr/G901:A-0006376793@N2M>

로버트 D. 카플란 지음, 이춘호 옮김, 『지리의 복수』, 서울: 미지북스, 2017.

박동환 편, 『주한미군의 전략가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http://uci.or.kr/G901:A-0008437140@N2M>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러시아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세르게이 곤차로프, 존 루이스, 웨리타이 지음,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http://uci.or.kr/G901:A-0006335675@N2M>

윌리엄 스톡 저, 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경기 파주: 나남출판, 2005.

<http://uci.or.kr/G901:A-0006080310@N2M>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997.

<http://uci.or.kr/G901:A-0008446637@N2M>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http://uci.or.kr/G901:A-0005994797@N2M>

황준현, 김승일 편역, 『조선책략』, 서울: 범우사, 2007.

<http://uci.or.kr/G901:A-0006457997@N2M>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서울: 지식산업사, 2007.

<http://uci.or.kr/G901:A-0006167425@N2M>

최영보 외, 『미국현대외교사: 루스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49.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2007.

Dean Acheson,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71.

Edward A. Olson,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San Francisco: World Affairs Council of Northern California, 1988.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London: Hutchinson, 1968.

G. A. Lensen,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1904, Florida: The Diplomatic Press, 1966.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Co., 1993.

John Chay and Tomas Ross (eds.), Buffer States in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2.

Nicholas J. Spykman,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1944.

- Peter Schweizer, *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4.
- S. B. 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 New York : Random House, 1963.
- S. C. 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William Elliot Griffis, *Korea, The Hermit Nation*, 9th ed., New York: AMS, 1971.
-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сква, ИВ РАН, 2004.

2. 논문

-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2012): 171-194.
<http://uci.or.kr//G901:A-0003060886@N2M>
-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 논집』, 제35권, 제2호, 한국아메리카 학회(2003): 50-80.
<http://uci.or.kr//G901:A-0001830498@N2M>
- 김학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2)(2019) : 5-30.
<http://dx.doi.org/10.18854/kpsr.2019.53.2.001>
- 박휘락,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합의 분석 :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2020): 105-129.
<http://uci.or.kr//I410-ECN-0101-2020-349-000889236@N2M>
- 박휘락,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전 대비 방향 평가: MDO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103호(2020): 85-106.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1390584@N2M>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정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2017): 367-401.

<http://uci.or.kr//G701:D-00115849343@N2M>

이영형,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2018): 137-162.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3892515@N2M>

이정훈,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분석”, 『東西研究』, 제30권 4호(2018): 63-97.

<http://dx.doi.org/10.29274/ews.2018.30.4.63>

정혜영,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2020): 101-136.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1394077@N2M>

차경미, “북중관계의 지정학 : 중국 지정학 전략의 ‘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 ‘지속’을 중심으로”, 『東西研究』 제31권 2호(2019): 139-168.

<http://dx.doi.org/10.29274/ews.2019.31.2.139>

최우선, “미중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국립외교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62.

허광환,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軍史研究』, 제147집(2019): 125-153.

<http://dx.doi.org/10.17934/jmhs..147.201906.125>

Hiroyuki Umetsu, “Communist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hostilities and a U.S. proposal for a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Pacific offshore island chai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ume 15, 1996.

Lixin Sun, "Chinese Maritime Concepts." *Asia Europe Journal*, Vol. 8, No. 3, 2010.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 1947.

3. 인터넷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https://slideplayer.com/slide/14776816/>
(검색일 : 2021년 4월 8일)

Ji-Young Lee, "Geopolitic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 Implications for U.S Policy in the Indo-Pacific"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A524-1.html>
(검색일: 2021년 3월 12일)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91.pdf?v=2699956db534c1821edefa61b8c13ffe> (검색일: 2021년 1월 14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sia, Volume VI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8v06/d_776
(검색일: 2021년 1월 28일)

Dean. Acheson, January 23, 1950,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S. Polic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 I I., No. 551.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docs/19500112.S1E.html> (검색일: 2021년 1월 18일)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china/#geography> (검색일: 2021년 1월 3일)

Entering The Dragon's Lair :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monographs/2007/RAND_MG524.pdf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S. Kulshrestha, "OPINION : Tonga & the Third Island Chain", IndraStra Global, February 25, 2016.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검색일 : 2021년 1월 3일)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검색일 : 2021년 1월 3일.)

U.S. Army TRADOC,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Future warfare (Washington D.C.: TRADOC, 2017), p. 2

<https://adminpubs.tradoc.army.mil/pamphlets/TP525-92.pdf> (검색일 : 2021년 4월 11일)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 2021년 4월 11일)

US Army War College SSI,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Army Theater Design, p.8.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1905&context=monographs> (검색일 : 2021년 4월 23일)

Brett Daniel, 'What Is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Trenton Systems Blog, on Nov 9, 2020

<https://www.trentonsystems.com/blog/what-is-jadc2> (검색일: 2021년 4월 19일)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March, 2021, p.8.

<https://fas.org/irp/offdocs/inssg.pdf>(검색일: 2021. 4월 11일)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350/text>

(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謝游麟, "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指揮體制," 海軍學術雙月刊 52.1 (2018),

<https://navy.mnd.gov.tw/Files/Paper/4-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pdf> (검색일: 2021년 8월 16일)

"纪念我国批准《联合国海洋法公约》十周年座谈会在京召开," 中國海洋學會, 2006.

<http://www.hycfw.com/Article/3499>(검색일: 2021년 1월 5일)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 : 2021년 12월 23일)

(Abstract)

Analysis of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Kang, Jung-il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one of the factors the U.S. and China's battle for hegemony. To further analyze "geopolitical position" that implies, Spykman's Rimland theory was used, and past examples were used to obtain a better answer on "What Kind of do they seek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kind of military strategies have been utilizing?".

The change in the military strategies of the U.S. and China, or other word's China's anti-access/regional denial (A2AD) strategy and U.S. multi-domain operations (MDO) we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 traditional U.S. and Chinese view of Korean Peninsula is currently being applied. This gives a better understanding how important the Korean Peninsula is, and what it implies for the future of U.S. and China.

The Korean Peninsula is a key area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where the U.S. and China can pitch their power, as the land and sea can separated, and on the contrast, the a coastal area can also provide to be medicator that can connect the force on opposite sides, Therefore with these reas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 choice but to be in middle of a continuous conflict.

During the Cold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sensitive buffer zone that had to endur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with the current separation maintain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i is still one of the only places where the legacy of the Cold War is preserved. With regards to military security,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of A2AD strategy hence it is a competitive space

for the U.S.'s MDO and its containment policy on China. South Korea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Geopolitical factors and prepare to make strategic choices by closely monitoring the operational environment regardless dichotomous thinking.

Keywords : Geopolitics, Containment Policy, A2/AD, MDO, Korean Peninsula

